

시바타 부부 컬렉션

시바타 부부 컬렉션은 10,000 점 이상의 아리타 도자기를 모은 것입니다. 1990 년부터 14 년간에 걸쳐 시바타 아키히코(1940~2004)와 시바타 유코 부부가 당관에 기증했습니다. 작품 대부분이 일본 국내 시장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간바라 컬렉션과는 디자인이나 용도가 다릅니다. 전시는 1610 년대부터 연대순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에도 시대(1603~1868)의 다양한 시기의 작품들이 아리타 도자기의 시대를 초월한 변화를 말해 줍니다.

초기 아리타 도자기는 회색빛이 도는 흰색의 소지(유약을 바르기 전의 도자기)가 특징이었습니다. 생산 공정의 질과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아리타 지역의 장인들은 더 희고 얇은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630 년대부터 디자인은 점차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백로와 학, 산토끼 같은 상서로운 동물과 용과 봉황 같은 신화 속 생물, 특정 종류의 꽃 등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17 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디자인과 기술이 크게 개량되었고 아리타 도자기의 평판은 높아졌습니다.

컬렉션 전시에서는 가키에몬 양식(유백색의 도자기 소지 위에 여백을 충분히 남긴 섬세하며 회화적인 구도가 특징)과 긴란데 양식(자기 문양에 금색을 다용한 기법)의 작품들이 초기 작품들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아리타 도자기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에서는 에도 시대에 아리타 도자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소개하고 있으며, 컬렉션에서 선정된 자기들을 당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밥상의 형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10,311 점 중에서 약 1,000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1 년에 1 차례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학술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예 부문의 등록 유형문화재 제 1 호로 지정되었습니다.